

Pamify

2014 10월~12월 vol.07

About Time

명품은 고민과 엄청난 디테일 속에서 태어난다

윤전팀을 소개합니다





vol.07
2014 Oct. Nov. Dec.

CONTENTS

Pamily
Family
Packcom
팩콤
파밀리



- | | | |
|----|-------|---------------------------|
| 02 | 칭찬릴레이 | 김정규 황영길 신규현 이화자 |
| 03 | 공감 | About Time |
| 04 | 공감 | 명품은 고민과 엄청난 디테일 속에서 태어난다 |
| 05 | 북페어 | 2014 동경 국제 도서전에 다녀와서 |
| 06 | 팩컴피플 | 서정애 사원 |
| 07 | 가족의편지 | 정창성 사원의 딸이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
| 08 | 힐링로드 |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있는 한옥마을로 초대합니다 |
| 10 | 맛집뷰 | 팩컴 근처 맛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
| 11 | 팩컴파트너 | 반갑습니다 저는 구이사입니다 |
| 12 | 이모저모 | 미술대학 연합전시 후원 |
| 13 | 이모저모 | Pacom 현장 체험 방문 |
| 14 | 쉬어가는곳 | 재미로 보는 혈액형별 직장상사 공략법 |
| 15 | 부서소개 | Pacom의 자부심 윤전팀을 소개합니다 |
| 16 | 문화공간 | |
| 17 | 기자체험 | 이원성 기자가 관람한 프로야구 |
| 18 | 찰칵소리 | |
| 20 | 팩컴뉴스 | |

* Pamily(Pacom Family)는 팩콤코리아에서 기획, 디자인, 인쇄한 사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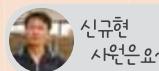
패밀리 칭 찬 릴 레 이

국내영업부
김정규김정규
사원은요~

어느 누가 보아도 언제나 푸근한 인상을 심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하게 될 때면 가벼운 미소를 짓게 만들어 주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새벽에도 아무 불평 불만 없이 연락을 받아 주며, 업무에 열중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입니다. 업무 연결상 서로 논의가 오갈 때도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 주고, 생각을 해주며, 이해를 하는 마음을 가진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임에 틀림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하루빨리 좋은 짜 을 찾기 바라요~~^~

제본사업본부
황영걸 과장황영걸
고장님은요~

제품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과 수작업 공정을 맡고 계신 황영걸 과장님. 새까만 얼굴이 무서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새까만 얼굴이 매력적인, 언제나 웃음을 주시는 과장님입니다. 항상 웃은 일을 하시면서도, 싫은 내색 하지 않으시고, 어 떠한 일어든 척척 해내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 보고 있노라면, 절로 놀라움을 금치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월간지 작업을 할 때면 많은 수작업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어, 어려움도 있을 법한데,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주시는 모습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신규현신규현
사원은요~

기끔은 까칠하여, '까칠이'라 부르기도 하는 신규현 사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현장을 돌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은 현장 직원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고 화사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에게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늘 지금과 같았으면 하고, 매번 장난 식으로 하는 말이지만, 하루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쁜 소식을 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본사업본부
이화자이화자
사원은요~

현장 3층에서는 딱 보았을 때 편안함이 물씬 풍겨 나오는 매력을 갖고 계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정합팀에 근무하시는 이화자 사원입니다. 인사를 하면 언제나 상냥한 웃음으로 화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대화를 하면 호탕하면서도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그 대화법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가도 어느새 아주머니의 매력에 매료되어 미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무더위에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웃는 일만 생기셨으면 해요.

영화 About Time

우리가 산 삶을 다시 돌아가 살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순간을 바꿀 수 있다면…

가끔은 비행하는 동안에 시간을 벌곤 한다.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 하루를 나 자신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다. 때론 아무와도 교통할 수 없는 이런 비행시간이 날 되돌아보게도 하고, 또 한가히 쓸 수 있는 시간의 저장고를 만들기도 한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영화 <About Time>을 본 후, 참 좋은 영화라고 꼭 보라고 했지만 시간을 놓쳐 보지 못했는데, 기내에서 보게 됐다.

그렇지… 우린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 나의 행위를 바꿔 또 다른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한다. 영화 속의 주인공 아버지 말씀처럼 바꾸며 사는 삶보다는 그 하루를 감사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하루를 되새기며 아, 그 때 그 순간을 짜증을 내며 보내는 것보다는 그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며 그에 맞는 내 마음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된다.

주인공은 남보다 못한 그의 외모와 용기 없음을 부끄러워했지만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의 용기를 갖추며 시간의 되돌림 속에서 하나하나 갖춘 삶, 즉 평범한 삶을 누리며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된다. 처음 그 자신에게 남들이 없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역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부'를 움켜쥐는 것을 생각했지만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됐기 때문이다. 너의 삶은 그 능력을 '부'를 위해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영화에서는 짧게 이야기하며 지나간 '부'로 인해 우리 삶에서 정말 모든 시간을 허비해 가며 삶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인상적이다. 주인공과 아버지가 함께 나눌 마지막 시간을, 어린 시절 함께 탁구를 치며 해변을 걸었던 단순한 행복한 시간으로의 여행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서 삶의 작은 추억을 통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린 정말 중요한 시간을 가장 허비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하게 될 행복했던 그 시간을. 우린 '미래'라는 삶에 갇혀 '오늘'을 희생해 가면서 이 순간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한 영화였다. 이 순간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시간에 또 한 번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음에 땡큐!

팩컴 AAP
최숙 대표이사



명품은 고민과 엄청난 디테일 속에서 태어난다

루이비통 카탈로그를 제작하면서 그들의 명품 정신을 배우다

전 세계에서 '명품'을 말해보라고 하면 누구나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 루이비통의 아시아용 가을 카탈로그를 지난 7월말부터 한 달 동안 팩컴이 제작을 했다. 프랑스 루이비통 본사에서 날아온 사람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여성들로 보였지만 일이 시작되자 그들의 프로 근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제작을 하는 팩컴의 입장에서는 값비싼 인쇄 기계를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세워두고 시간을 끄는 것이 하나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짜증나는 일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색상 차이 하나로 6시간 이상을 끌면서 본인들이 만족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강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스스로 타성에 빠져서 대충주의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무엇 하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으면 끝이 보일 때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이 부족하지 않은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1854년 루이비통이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를 오픈한 이후로 지금껏 160년간 그 명품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충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섬세함과 집요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팩컴인이라면 적어도 PACOM의 Catchphrase인 '팩컴이 만들면 명품이다'에 걸맞는 프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섬세함과 집요함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7월 29일 몹시도 무덥던 날 오후 프랑스 에어로부터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본사 인쇄기계 앞으로 와서 색상 감리를 시작하여 꼬박 이틀을 감리하더니 한치의 쉴 틈도 없이 31일날 새벽에 곧바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 루이비통 이사벨 이사님의 뒷모습에서 팩컴인이 가져야 할 명품 근성을 벤치마킹 해야하지 않을지 생각해 본다. **P 황철원**



2014 동경 국제 도서전에 다녀와서

대세는 E-book, 우리의 인쇄 솔루션과 훌륭한 제본 퀄리티 어필해야

2014 동경 국제 도서전(Tokyo International Book Fair)에 참가했다. 도서전은 7월 2일부터 5일까지 아리아케의 Tokyo Big Sight에서 개최되었다. 규모적으로 본다면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금년도 역시 도서전과 E-book 세션이 서관 1층 전시장의 반을 차지했다. 도판, 다이Nitron, 도서인쇄 등의 기존 거래 인쇄소는 자신들의 부스 대부분에 E-book Solution에 관련된 세션을 할애하여, 경쟁하듯 홍보에 열을 올렸다. 앞으로의 대세는 E-book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으로 강한 듯 했다. 반면 보수적인 인쇄 회사들의 경우 E-book보다는 자신들의 인쇄 solution을 좀

더 어필하는 모습이었다. 히라카라 인쇄사는 AGFA Sublma 240 lpi, 320 lpi 인쇄 Solution과 그 인쇄 퀄리티에 대한 내용을 부스 전반에 내세웠다.

현재 거래 가능성이 높아진 다이Nitron 외에 새롭게 도서 인쇄에서 관심을 표명한 것은 분명 좋은 징조일 것이다. 일본과의 거래는 인내심과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일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곤 한다. 기타 중, 소규모의 잠재적인 고객들과도 미팅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몇 년 간 계속 방문하여, 낮이 악은 경우도 많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은, 한국과의 거래 경험이 있거나 혹은 한국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오너가 있는 출판사들이다.

이번에도 고객사인 프리런 측에서 고객 응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친절한 모습과 많은 영업 노하우를 보고 내 자신을 반성하곤 한다. 일본 공략 쪽의 영업 면으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미진하지만,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꿈이 조금은 현실에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다. 지속적인 follow-up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는 회사이며, 그 중에서도 무엇을 잘 하는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우리가 가능한, 혹은 잘 하는 인쇄 솔루션과 훌륭한 제본 퀄리티를 좁은 부스 안에서 어떻게 일본인들의 뇌리 속에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황철원



사철의 우아한 꽃과 같은 서정애 사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현장에는 할 일을 묵묵히 하시며 자리를 지켜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호에서는 Pacom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사철'의 서정애 사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팩컴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A 네, 가족과 거의 떨어져 지내는 편이라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부산 근교로 드라이브 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Q 날씨도 좋았었는데, 좋은 시간 되셨겠어요~ 가족 분들과는 거의 떨어져 지낸다고 하셨는데, 와롭진 않으세요?

A 사정이 있어 주말 제외하고는 거의 떨어져 보내긴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부산 내려가서 만나기도 하고, 평소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좀 와롭게 느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 시간도 있고 좋은 편입니다.

Q 고향이 부산이신데, 이쪽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A 거의 17년 정도 된 것 같네요~

Q 오래 되셨는데, 이 분야 직종이 처음 직업이신 건가요?

A 아니에요, 부산에 있을 때는 서비스 계통에서 근무했었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어요.

Q 그럼 Pacom에서의 근무는 어떠셨어요?

A 우연찮은 기회에 서울로 와서 성인문화사업부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제 자신에게 다시 오지 않을 뜻 깊은 기회 중 하나였어요.

Q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A 업무는 힘들지 모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긴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특히나 책을 만드는 직업이었던 덕분에 마음의 양식도 쌓아올 수 있어서 저에게는 자기 계발의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더욱 회사에 많은 애착이 있습니다.

Q 인생에서 사람마다 꼭 잡아야 하는 세 번의 기회가 찾아 온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pacom에서의 근무가 그 중 하나이셨겠군요?

맞아요, 가끔도 생각해요. 내가 계속 부산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부산에서 서비스업에서 계속 있었다면 제 자신이 한없이 나타해지고, 작아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자신이 배움의 폭도 넓어지고, 개척해온 것도 많아서 가족들한테 오히려 당당한 엄마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주변 동료들의 도움도 컸구요.

Q 혼자 계실 때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 편이세요?

A 제가 산을 좋아해서 회사 산악회랑 별도 동호회에 가입하여 산행으로 주로 시간도 보내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편이에요. 요즘 들어 부쩍 좋아하는 시간은 가족 만나러 내려가는 기차안이지요.

Q 기차안이요?

A 네, 부산 내려가고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 쌓인 스트레스나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갔다 오고 나면 개운한 느낌에 한결 마음이 편안해집을 느끼구요.

Q 가족들을 만나서 더 그렇게 느끼신 것은 아닐까요?

A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크겠죠?^^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지요~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을 만드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에 색다른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책이 그 어느 것보다 많은 교훈과 지식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인터뷰였습니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경험을 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이운정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에게



제본사업본부 무선팀 정창성 시원의 딸이 아빠에게 보냅니다.



아빠 앞에선 늘 아름다워요! 것만 같았던 자도 벌써 성년이 되고 동생도 고드락생이 되었을 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 느낍니다. 아빠의 시간은 저희들보다 더욱 더 빨리 흘러가고 있겠죠? 제가 이렇게 무사히 대학교에서 평화롭게 공부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 가족을 위해 묵묵히 고생하시는 아빠 덕분인 것 같아요. 항상 고마움과 존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할 때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빠가 나에게 “아빠는 분명히 너가 해낼 것이다”라고 믿는다. 아빠는 널 믿어”라며 응원 해주시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드든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 되었는지... 아빠의 응원에 흔자방에 들어와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렸을 적, 아름다워요! 되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휴가를 잔뜩 기대하여 열심히 준비를 하셨던 아빠의 모습! 아련포! 떠오릅니다. 항상 가족에게 좋을 것만 보고 느끼기 해주기 위해 노력해왔던 아빠의 마음이! 와아! 제조사에서 전해지는 걸까요. 그런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힘들다고 떼쓰고 투정만 부렸던 철 없었던 어린 저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워집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가족이 우선인 우리 아빠... 회사 점심으로 나오 백숙이! 정말 맛있었다며 자신의 몫을 쌌 가지고 우선 저와 동생에게 먹여 보라며 건네셨던 아빠~! 스크립트! 먹고 싶다고 말하면 그런 것은 몸에 좋지 않다고 다그치면서도 조용히 아아! 스크립트를 사다 주던 우리 아빠~! 아빠의 딸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니, 힘들거나 지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십 년간 묵묵히 가족들만을 위해 살아온 아빠의 지난 시간들이 더욱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제는 아빠도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아님, 아빠 본인!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시면서 그렇게 아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아빠는 못 말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아빠와 꼭 닮아 있는 저를 떠올리며 웃음이 나올 때가 한 두 번이 아는 것 같아요. 무뚝뚝한 딸이라 표현은 잘 못하지만, 아빠가 나오는 아빠라는 사실! 자랑스럽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 1순위는 언제나 아빠였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항상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많아 가고 가족끼리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들을 더욱 더 많이 만들어야 가요. 제가 늘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 알죠?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딸! 되도록 매 순간 노력할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언제나 저희 가족들 곁에 있어 주세요. 아빠~! 정말 많아 사랑합니다.♥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있는 전주 한옥마을로 초대합니다.

전주터미널에 도착하면 많은 버스들이 한옥마을 정거장을 지나친다. 노선표와 안내방송이 잘 갖추어져 있어 어려움 없이 한옥마을 풍남동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풍남문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일본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동쪽으로는 한옥촌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단순히 전통가옥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한옥마을의 형성 바탕에는 일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신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 거 같았다.

전주한옥마을은 3가지 관광코스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한옥마을의 규모가 크지 않아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구경하기로 결정! 그 시작은 ‘경기전’이다. 경기전은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만든 곳이라고 한다. 경기전에 들어서자 사람

들이 북적북적했지만 경기전이 제법 넓어 이곳 저곳을 구경할 수 있어 사람들로 인한 답답함은 없었다. 경기전은 잘 꾸며진 정원 같은 느낌을 받았다. 청아한 대나무 숲, 여기저기 심어있는 꽃들, 그리고 좌우 대청을 이루고 있어 권위와 엄숙함이 느껴지는 경기전 정전이 있다. 경기전을 구경하는 틈틈이 작은 정자와 분수대에서 잠시 쉬어 가면 좋다.

경기전을 나오면 눈에 띠는 성당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히는 ‘전동 성당’이 자리잡고 있다. ‘약속’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이곳은 서양식 근대 건축물로서 가장 오래된 사적 제 288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성당 내부는 둥근 천장과 스테인드글라스로 되어있어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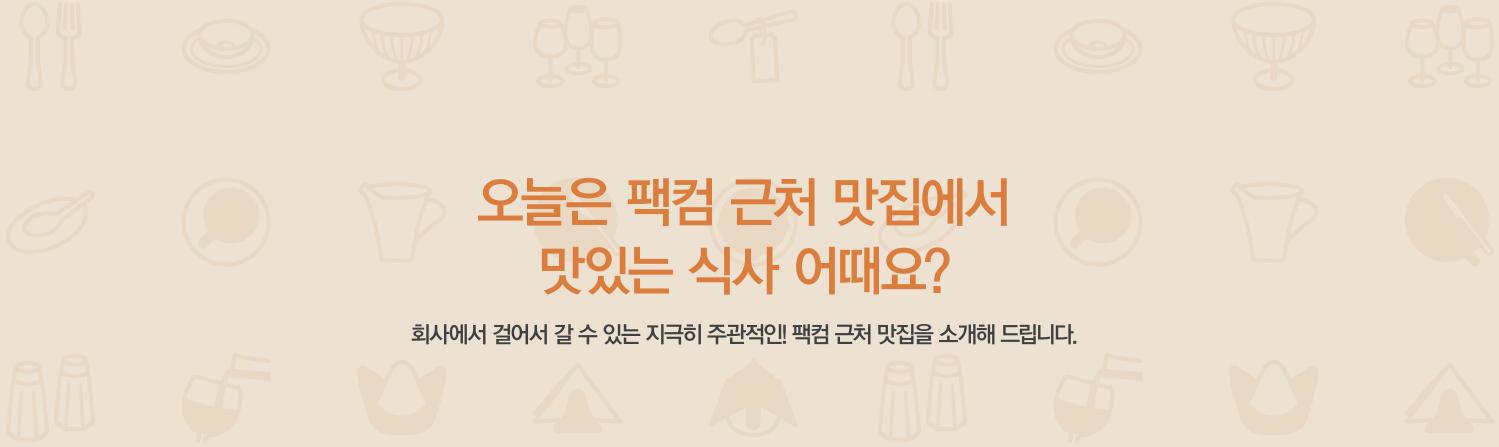
한옥을 떠올리면 가지런한 기와장, 낮은 담장, 편안함이 연상됩니다. 도시개발 바람으로 많은 전통가옥들이 사라졌지만 끗듯이 그 자리를 지키며 고즈넉한 멋을 느낄 수 있는 명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명소로 서울에 위치한 북촌 한옥마을과 전주 한옥마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전동 성당을 나와 본격적으로 한옥 마을을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기 시작했다. 낮은 담장 사이로 골목 골목을 걸으니 지나치는 집마다 비슷했지만 포근함이 느껴져서 정겨웠다. 한옥마을에는 작은 동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곳 정상에 '오목대'가 있다. 오목대는 고려 말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군을 무찌르고 본향인 전주에 들러 여려 종친과 승전고를 올리며 자축한 곳이라고 한다. 오목대에서 바라보면 한옥마을이 한눈에 보이는데 도시의 빽빽한 사각 빌딩이 아닌, 자연과 어우러져 낮고 평온해 보이는 기와장 지붕을 보며 한옥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상상을 해봤다.

전주한옥마을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거주민의 비율은 줄고,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카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 한 컨에선

아쉬움이 남았지만 걷는 중간중간 구경거리, 맛집이 즐비하여 눈과 입이 호사스러웠다. 한옥마을은 맛집 탐방을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도 있으니 여행하기 전 맛집 검색은 필수다. 걸어야 할 길을 정하지 않고 느긋한 마음으로 느릿느릿 걷다 보니 놓친 길도 있었겠지만, 발길 딩는 대로 골목길을 둘러보고 대청마루에도 누우며 한옥을 즐기니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전주 한옥마을은 서울센트럴 터미널이나 동서울터미널에 가면 오전 6시부터 30분에 한대씩 출발하는 전주행 버스를 이용해 갈 수 있다. 3시간이면 전주에 도착하니 번잡한 도시의 시끄러움과 갑갑함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은 이번 주말 전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주선영



오늘은 팩컴 근처 맛집에서 맛있는 식사 어때요?

회사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지극히 주관적인 팩컴 근처 맛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덕성관 ★★★☆☆

다리 앞 골목에서 바로 보이는 덕성관은, 팩컴 가족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맛집입니다. 짜장면과 짬뽕은 기본에 충실향한 맛을 자랑하며 탕수육과 깐풍기 등의 요리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비좁고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아 별점은 3개 드렸습니다. Tel. 031-452-2610

2 강남 김치찌개 ★★★☆☆

가장 심플한 메뉴 구성을 가진 식당으로, 간판 그대로 김치찌개만! 파는 맛집입니다. 단일 메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맵고 얼큰한 것이 먹고 싶으신데 멀리 나가고 싶지 않으시다면 딱 좋은 선택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전 매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별점 2개 드렸습니다. Tel. 031-427-8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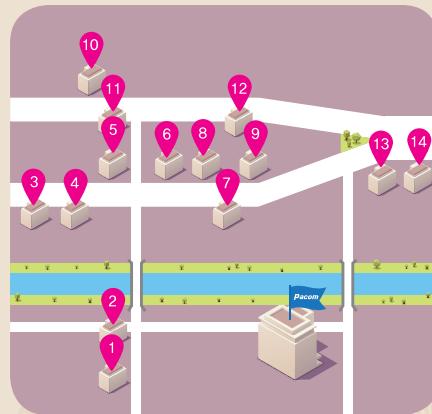
3 이향원 뽕의 눈물 ★★★☆☆

짬뽕 전문점인 뽕의 눈물은, 미리 주문하고 가시면 바로 드실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서비스가 장점입니다. 탱글탱글한 오징어와 해산물들이 그릇 가득 푸짐하게 들어있어 얼큰한 짬뽕이 먹고 싶을 때 가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짬뽕 전문점이여서 그런지 짜장면이나 탕수육은 추천해 드릴 맛이 아니니 짬뽕만 드세요! Tel. 031-429-0999

4 왕십리 곱창 ★★★★☆

불냄새가 그윽하게 배도록 그릴 위에서 통으로 구운 후에 잘라서 한 번 다시 구운 후, 양념을 발라서 다시 한 번 구워 냅니다. 곱창이 아니라 막창이라는 말도 있지만 매콤한 양념의 맛과 불맛, 거기에 깻잎과 마늘을 같이 먹으면 막창이든 곱창이든 상관없이 너무 맛있어서 다시 찾게 되는 맛집입니다. 가끔 냄새가 날 때가 있다고 해서 별 하나 뺀 4점 드립니다.

Tel. 031-427-4656



5 국가대표 용두동 쭈꾸미 ★★★☆☆

매콤한 쭈꾸미 비빔밥을 추천합니다. 매워요. Tel. 031-429-8834

6 산너울 ★★★☆☆

한정식 전문 맛집입니다. 더덕정식과 산채정식이 주 메뉴인데, 1만원 정도에 고기와 생선 반찬 등이 푸짐한 정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Tel. 031-427-7188

7 수제 돈까스 & 호프 ★★★☆☆

두툼한 고기를 퍼서 만든 돈까스에 수제 소스를 듬뿍 부은, 옛날 돈까스 맛이 나는 맛집입니다. 가끔 느끼한게 먹고 싶을 때 찾으면 괜찮은 곳입니다. Tel. 031-429-4443

8 장터 순대국 ★★★★☆

순대국 뿐만 아니라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등의 모든 메뉴가 맛있는 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점심시간엔 항상 사람으로 북적이니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Tel. 031-427-1017

9 청천강 다슬기 ★★★☆☆

들어가는 입구의 다슬기 어항에서 알 수 있듯이 다슬기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지만, 이 집의 진짜 맛은 '뚝닭'입니다. 뚝배기에 닭볶음탕이 담겨져 나오며, 옛날 도시락

통에 밥과 계란 후라이가 올려져 같이 나옵니다. 매콤한 닭볶음탕 양념과 큼직한 감자가 매력입니다. Tel. 031-429-6178

10 갈비 명가 두툼한 숯불갈비 ★★★★★

점심보다는 저녁에 가면 좋은 곳입니다. 가게 이름대로 숯불갈비가 주 메뉴인 곳으로, 두툼한 고기에 양념이 잘 배어있어 입 안에서 살살 녹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손님이 많으니 예약은 필수로 하고 가셔야 합니다!

Tel. 031-455-4421

11 신남 고기 부페 ★★★☆☆

저렴한 금액에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기 부페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셀프서비스라 별점을 깎았지만, 다양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맛집입니다. 서비스는 기대하지 말아요! Tel. 031-457-4117

12 장수옥 ★★★☆☆

설렁탕 전문 집이지만 도가니탕이 일품입니다. 진한 국물과 쫄깃한 도가니를 맛볼 수 있는 맛집입니다. Tel. 031-456-6833

13 24시 전주 콩나물 해장국 ★★★★★

뚝배기에 담겨 보글보글 끓는 콩나물 해장국에 날계란을 풀고 장조림과 청양고추, 김과 새우젓을 원하는 만큼 넣고 먹으면 왜 이곳이 당정동 맛집으로 불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장에도 최고지만 슬슬 추위지는 요즘에 가서 먹으면 최고예요.

Tel. 031-455-3535

14 채선당 의왕점 ★★★★☆

소개한 맛집들 중 가장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맛집입니다. 채인점인 만큼 무난한 샤브샤브의 맛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Tel. 031-455-7210

P 박미선



반갑습니다. 저는 구이사입니다

많은 팩컴 가족들이 저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쇄 감리가 있을 때마다 회사 이곳 저곳을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이번 패밀리 사보를 통해서 저를 소개하고 인사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제 이름은 울겐 구차이트입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함부르크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19년 설립된 함부르크 대학은 독일 내에서 큰 연구소와 교육시설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재생산 및 인쇄기술을 전공하고 석사 및 교육학위를 이수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잠시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나, 실질적인 인쇄산업 분야로 이직하여 'Magazine Publisher & Printer GRUNER & JAHR'라는 독일의 잡지회사에서 일했습니다.

10년 후 저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인쇄분야에서 선도역할을 하고 있는 'Dr.-Ing. RUDOLF HELL and HEIDELBERG'입니다. 하지만 1984년 저에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행운이 생긴 겁니다. 유엔은 저를 동남아시아 방콕으로 파견하였고, 그곳에서 저는 아시아 인쇄발전과 펠프 및 종이 산업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5년 후 유엔과의 업무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에 있는 SMIPC 회사와 연락 중이었습니다. 인쇄산업에 대한 기술 상담과 서비스를 요청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성인 문화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성인문화사를 위해서 기술감독으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열정적으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잠시 출판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팩컴코리아가 성인문화사를 인수하였을 때 김경수 사장님께서는 제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돌이켜 보니 지금까지 한국과 인연을 맺은 지 20년 이상이 흘렀네요. 저의 한국 동료들은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사랑하는 아내 성미 씨와 캘리포니아 서부에 위치한 발레이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팩컴코리아가 더 많은 고객과 만나고,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기술 이사직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팩컴코리아와 함께 일하며 환상적인 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곧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시 여러분을 별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P**주선영



북메이크는 지난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꿈의 숲 드림갤러리에서 열린 미술대학 연합전시 〈침투, 미묘한 작용〉의 도록 100부 제작을 후원했습니다.

미술대학 연합전시는 서울시 소재의 국민대, 서울대, 홍익대, 이화여대 조형 대학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전시로, 서로의 작업 가치관과 관심사 등을 공유하며 전시를 통해 대중과 만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2년 제 1회 〈선〉전을 시작으로, 2013년 제 2회 〈나가 감히〉전을 개최하였으며, 이번이 세 번째 전시입니다.

북메이크는 학생 예술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담은 도록 제작을 후원하여 작가와 관객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고, 많은 대학생들과 전시 관람객에게 북메이크를 알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비 디자이너와 예술 작가들의 역량 발전을 도와 인재 육성과 밸류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미술대학 연합전시 기획단에서는 북메이크의 후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북메이크를 홍보하였습니다. 도록에 북메이크의 전면 광고 게재 및 로고를 싣고, 홍보 동영상에도 북메이크의 로고를 넣었습니다. 또한 약 1,900명의 좋아요 회원이 있는 미술대학 연합전시 페이스북에 북메이크 단독 홍보 포스팅 3건, 연합전시와 같이 홍보 포스팅 3건을 게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북메이크는 평소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다수 의뢰받고 있습니다. 이번 도록 후원으로 더욱 많은 예술 대학 학생들에게 북메이크의 장점을 알리는 좋은 홍보의 장이 되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P 이가진](#)



Pacom 현장 체험 방문 2탄!

지난 5월 신임 사무관 체험에 이어, 7월 초에 국회 5급 예비 사무관 분들이 Pacom에 방문하여 직업을 체험하는 연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분들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자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체험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우선, 국회 5급 사무관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나요?

권순진 사무관 국회 사무처에서 각종 자료 수집과 분석, 예산안 분석과 결산 심사 등 국회의 전반적인 사무 역할을 합니다.

기자 근무지는 확정이 되신 것인가요?

권순진 사무관 아니요, 8월 말까지 연수를 한 후에 근무지 배정 예정입니다.

기자 그럼, 이 사보가 출간될 때 즈음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배정 받은 후겠군요~ 중소기업 체험은 처음이신가요?

일동 네~

기자 저희 회사를 방문해 보시니 어떠셨나요?

김수진 사무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김준현 사무관 맞아요~ 책 한 권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한 분 한 분의 땀방울이 있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것 같아 존경심이 듭니다.

한예슬 사무관 평소 책을 좋아했는데, 만드는 과정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너무 신기했고 현장 분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기자 현장 업무는 다들 처음이셨을 텐데,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체험해보시니 어떠셨는지요?

남선우 사무관 저 같은 경우는 평소 책의 디자인 편집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출판과 인쇄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찾아보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정책이 현장 근로자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국회 사무관들 분이셔서 그런지, 정부 지원정책으로 생각 해주셨군요. 다른 분들께서는 어떠셨나요?

권순진 사무관 저도, 남선우씨와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의 지원 정책에서는 많은 개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달래 사무관 현장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대다수이신데,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그러셨군요.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현장 근무 체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분들이 국회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번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경험으로 이후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서 현장 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운정**

재미로 보는 혈액형별 직장상사 공략 법!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혈액형 A형

A형은 세심하고 성실하며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A형은 대부분 꼼꼼하고 치밀하여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상사로서,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가끔 너무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모습으로 인해 부하직원이나 동료는 답답하거나 숨이 막힌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A형 상사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며, 시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보고하고 A형 상사가 잔소리를 할 때에는 대꾸하는 것보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형 상사: 김철성 부장님, 김상광 부장님,
조상용 부장님, 권기형 부장님,
전철우 차장님, 김익성 과장님



책임감이 강한상사 O형

O형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사로서의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등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조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부에서는 부하직원이 잘못을 하면 심하게 혼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조직원을 감싸주는 멋진 상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O형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적으로 친해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 정도는 크게 개의치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O형 상사: 김홍규 상무님, 국종석 부장님, 김희수 차장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의 B형

외향적인 성향이 많은 B형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대인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상사의 권위나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지 않는 자유로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자나치게 자유로운 성격의 B형 상사가 많은 단체에서는 조직의 질서가 무너지고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B형 상사의 예쁨을 받기 위해서는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창의력이 뛰어난 B형 상사가 내놓은 다소 횡당한 아이디어에도 맞장구를 치며 이해하는 척 행동이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살짝 육하는 성격의 B형 상사는 심한 악단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뒤끝 없고 쿨한 성격이 B형상사의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B형 상사: 김경수 사장님, 최승천 무님,
조성길 상무님, 이병길 본부장님,
황철원 부장님, 류희전 부장님,
신동훈 부장님, 이원성 부장님, 최경현 차장님



가장 합리적인 혈액형 AB형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고 누군가 자신의 업무를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AB형 상사! 가장 합리적이고 공사구분이 뚜렷하여 민주적인 조직 관계를 구축합니다. 부하직원의 사생활에도 관여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는 AB형 상사입니다. 하지만 가끔 너무 합리적이고 냉정해서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AB형 상사의 믿음을 얻고 싶다면 O형과는 반대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됩니다. 공사 구별이 뚜렷한 AB형 상사는 아무리 친한 부하직원이라도 공적인 일에는 절대 혼들리지 않습니다. AB형 상사는 능력 있는 부하직원을 높이 평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AB형 상사: 송창건 차장님





Pacom의 자부심 윤전팀을 소개합니다

잠들지 않는 부서 윤전~ 한번 부르릉 시동이 걸리면 끝없이 돌아갑니다. 윤전팀은 야구팀도 만들 수 있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쉽게도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팀입니다. 공장에서 가장 크고 넓고 높은 장비 그리고 이 곳에 들어가면 우렁찬 소리에 귀마개는 필수입니다. 종이를 운반하기 위해 전동 샤크이 이동하고, 인쇄 후 접지된 인쇄물을 정렬하는 로보트 등 최첨단 설비를 이용하는 부서이기도 하지요.

부서에서 막내 이준 사원은 처음엔 한국말이 서툴어 몸짓을 이용했지만 중국말은 잘 하고 전동 샤크 운전도 잘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조금 지나 이젠 제법 윤전맨이 되어 가고 있지요. 산이 좋아 산하고 연애 중인 최은환 부기장은 특히나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산행을 즐겨 하고, 산행을 같이 할 동반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전차로 출퇴근, 비 오는 날은 걸어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고 금연하고 몸관리를 철저히 하는 남진만 부기장, 군시절부터 족구선수로 활약하여 상공회의소 족구대회에 참가했었지만 예전처럼 실력은... 그래도 회사 부서대항 족구대회에서는 밤이 하늘 높이 오르는 한창현 사원, 부부금실이 유난히 좋기로 소문나 얼마 전 늦둥 이를 낳아 더욱 열심히 일하는 유재현 사원, 보기보단 제법 식사량도 많고 주류양도 많은데 도저히 살이라고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김도원 부기장, 언제나 직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구본성 대리, 올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늄름한 대한의 아들과 함께 쉬는 날엔 자전거로 한반도를 돌고 있는 김일영 기장, 윤전 식구의 궂은 일 등 뭐든 해결 못하는 것을 맥가이버 손을 갖고 해결 완료하는 신정학 과장 등 이렇게 모인 9인 식구는 1년에 한 번쯤은 팀 단합대회를 1박으로 동해, 서해로 나가서 물고기도 잡고 고기도 구워먹고 공도 차고 팀 화합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전 인쇄에서는 어떠한 까다로운 고객도 모두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전팀 여러분 파이팅~~! 이원성





독서의 계절에 읽으면 좋은 책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 존 그린
빈짝이는 유머와 아련한 눈물이 어우러진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의 의미, 일생일대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말기 암환자인

16세 소녀 헤이즐은 의학 덕분에 시간을 벌긴 했지만, 종양이 폐에 전이되어 늘 산소공급기를 상비해야 하는 처지다. 엄마의 권유로 암 환우 모임에 참가한 헤이즐은 골육종을 앓고 있는 어거스터스를 만나 첫눈에 서로 빠져든다. 또래에 비해 한없이 죽음에 가까운 두 사람은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줄까? 우린 이 세계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질문에 관한 답을 함께 찾아간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재기 넘치는 대화들은 이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이다.



난중일기 완역본 – 이순신
여름에 영화 [명량]을 재미있게 봤다면, 가을엔 난중일기를 읽어야 할 때!
난중일기 완역본. 이순신의 난중일기 초고는

전편이 초서로 되어 있어 후대에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 책은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새롭게 반영하여 종합 정리한 증보 교감완역본이다. 역사적인 내용과 용어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완하였으며, 후대의 이본들을 모두 망라하여 정리하였다. 부록에는 이순신이 정유재란 이후 수군을 재건하기까지의 과정과 명량대첩의 승리요인을 설명하였다.



나사보다 우주에 가까운 동네 공장 – 우메마쓰 쓰토무
동네 공장을 전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기업으로 일궈낸 감동의 성공 스토리『나사보다 우주에 가까운 동네 공장』. 히魯한 동네 공장을 물려받아 일본의 재활용 전자석 시장 1위 기업으로 발돋움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꿈과 열정을 탑재한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린 투지의 CEO, 우메마쓰 쓰토무가 전하는 성공 메시지를 만날 수 있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될 때까지 해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져라, 틈새시장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을 꿈꿔라 등 주옥 같은 성공 메시지가 책 전체에 실려 있다. 포기와 불가능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꿔놓을 기회를 선사한다.

가을에 놓칠 수 없는 축제



하이 서울 페스티벌
일시 : 2014.10.1(수) ~ 5(일)
장소 :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청계천로, 세종대로, 덕수궁길 시민 청, 서촌
내용 : 거리극 <심청>,

<끝장대.로> /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해외9개작품, 국내18개작품, 자유22개작품) 등을 무료로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축제가 찾아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서울의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을 놓치지 마세요.
또, 시민들이 만드는 작은 축제 <시작>, 시민 참여 프로그램 <시민예술공작단>, 만남과 교류의 장 <페스티벌 라운지>, 축제를 통한 나눔 <협력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hiseoulfest.org>



창덕궁 2014년 하반기 달빛기행
일시 : 2014년 9월 ~ 11월
장소 : 창덕궁
내용 : 참가비 30,000원
회당 100명 선착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창덕궁 야간답사에서는 [돈화문(집결)→진선문→인정전→낙선재(달빛감상)→부용지(달빛감상)→불로문→연경당(전통공연 및 다과)→후원숲길→돈화문(해산)] 동선에 따라 창덕궁의 역사, 문화, 조경 등에 대한 안내해설을 제공하며, 전통예술공연 관람(다과 시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고궁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4008592>



수원 화성 달빛 동행
일시 : 2014년 10월 3일 ~ 4일
장소 : 수원 화성
내용 : 참가비 20,000원
회당 100명 선착순 접수.
하얀 달빛 아래 아름답게 빛나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황금색으로 빛나는 성곽길을 따라 달빛 야경을 만끽하고 조선시대 행궁 건축의 백미, 화성행궁에서 펼쳐지는 전통연희를 즐기는 수원화성 야간 투어 ‘달빛동행’을 소개합니다. 수원화성 달빛동행은 화성행궁, 수원화성 야간투어 프로그램으로 환하게 쏟아지는 달빛 아래 시와 이야기가 있는 감상해설과 동행하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고 화성행궁 안에서 전통연희를 즐기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 ‘달빛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원성 기자가 관람한 프로야구



프로야구 경기장 가 보셨나요? 어느 날 소리 함 지르고 싶어서 문득 잠실야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장내 아나운서의 방송소리, “금일 경기는 매진되었습니다.” 아, 큰 맘 먹고 잠실야구장을 찾아왔는데 “금일 경기는 매진되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줄이야, 정말 눈 앞이 명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가방 든 아저씨가 살며시 오더니

“암표 있어요~ 만원!”, “자리 많아요.” 하십니다. 여러분은 암표를 구입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해 보셨나요? 저는 암표를 구입해서 경기장에 입장한 경우가 있답니다.

그 이후 제가 즐겨 응원하는 L야구팀이 경기하는 날 주말에는 자꾸 경기장을 가보고 싶어 예매는 인터넷으로 하는데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열심히 예매를 하고는 경기장에 입장을 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꽉~ 꽉~ 풀린답니다.

자, 일단 야구장 표는 있으니 경기장 주변을 구경 한 번 해볼까요? ^_^ 먼저 야구장에 가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피자, 치킨, 맥주를 파는 상점들입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1인자 삼성 라이온즈와 4위를 고수하고 있는 LG 트윈스의 경기라 흥미진진한 한 판 승부가 기대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MBC SPORTS 중계차량 왔네요.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치킨과 캔맥주를 들고 야구장 안으로 들어가면 각자 응원하는 구단의 유니폼을 입은 관중이 보입니다. 열정적인 응원과 경기가 기대됩니다.

잠시 후 경기가 시작되면 열정적인 응원을 하는 치어리더의 율동과, 힘차고 박진감 나게 응원 관중을 위해 외치는 응원단장의 외침을 따라 하고 있으면 경기보다 응원에 몰입된답니다.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결정적인 안타를 치고 딜려 나갈 때는 좌우 모르는 사람과도 함께 어울려 하이파이브를 하고, 아까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아웃이 되는 경우는 모두 같이 아쉬움을 캔 맥주로 위로한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승리하면 승리한 기분에 한 잔, 패하면 패한 원인 분석한다고

한잔하고 집으로 GO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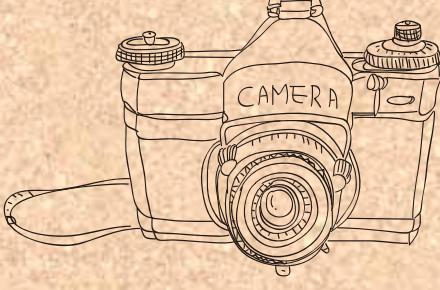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투수 류현진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은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모두 모여 TV를 시청하지요. 정말 잘 던져서 승리를 하는 날, 우리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며 류현진 선수 이야기가 끊이질 않지요.

한국의 프로야구는 현재 9개 구단(삼성 라이온즈, 두산 베어스, 엘지 트윈스, 넥센 히어로즈, 롯데 자이언츠, SK 와이번스, NC 다이노스, KIA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이 2014년 프로야구 경기를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새로이 등장하는 KT 위즈팀 이렇게 10개 구단이 각 지역의 연고를 대표해서 경기를 치릅니다. 1개 구단에는 100여 명의 선수와 20여 명의 스텟과 10명의 응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프로야구의 최고 연봉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한화 이글스 김태균 선수입니다. 또한 국민투수 박찬호, 류현진 선수도 한화 이글스 출신이지요. 하지만 한화 이글스는 현재 순위가 아래에 있지요. 그러나 한화를 응원하는 관중은 아주 단결이 잘 되어 있어서 얼마 전 KBS ‘다큐 3일’에도 방영이 되었어요. 한화 이글스는 아마도 내년 2015년에는 중위권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많이 들하고 있답니다.

이기자가 응원하는 L구단은 작년 2013년 시즌 경기에서 오랜만에 4위에 등급되어 가을 야구를 즐겼지만 더 이상은 오르지 못하였고, 2014년 4월, 5월에는 꼴찌라는 순위를 맞이한 후 차츰 순위가 올라 9월 말 현재는 4위를 지키고 있답니다. 5위, 6위와의 차별화 순위 싸움이 한층 프로야구 경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가족, 직장 동료들과 치킨과 시원한 맥주와 함께 소리 지르며 열정적인 응원을 할 수 있는 야구장으로 달려 가세요~~  **이원성**



찰칵소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E-mail : suhee5336@gopacom.com





PACOM NEWS

국회 사무처 신임사무관 중소기업 현장 체험



지난 7월 3일과 4일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사무처 신임사무관 6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현장체험을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 신임사무관의 현장체험은 사무관들이 자율적으로 지명한 회사에서 체험활동을 하게 되어 있으며 금번 체험에는 김수진, 권순진, 김준현, 진달래, 한예슬, 남선우 신임사무관이 3층 제본 양장팀에서 체험활동을 하였다.

군포e비즈니스고 현장 업무 실습



2014년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의 사업 일환으로 실시된 군포e비즈니스고 취업대비반 학생 중 최종 면접을 본 7명(정해인, 임진혁, 한영기, 한석준, 김대재, 전

인범, 권재혁)이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간 100시간의 현장 실습을 하였다. 오전에는 직장예절과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오후에는 현장 prepress, 인쇄, 제본의 각 공정에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수고하셨습니다



8월 월례조회(8월 7일)에는 뜻 깊은 행사가 있었다. 지난 1983년 9월 2일 첫 직장에 입사한 이후 30여 년간 변함없이 직장 생활을 하신 김교원 과장님의 정년 퇴직 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인사말에서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보고, 한때는 보증관계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집도 마련하고 아쉽지만 보람된 직장생활을 하였다”며 활활 웃음으로 마무리하고 회사를 떠나기 전 모든 공정 부서의 직원들을 찾아 다니며 인사와 약수를 하였다.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책자 부분 은상 수상

지난 9월 25일에는 서울 시청에서 개최하는 ‘제9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 축제’의 공모전에서 우리 회사에서 제작한 MAGNUM CONTACT SHEET 이 책자 부분 은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하였으며, 기술인력 부분에서 제본사업본부 심은식 과장이 수상을 하여 더욱 자리가 빛났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2014년 3/4분기에 입사하여 팩컴 그룹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POD실 전인범, 제본사업본부 소대용

결혼식 “행복하세요”



지난 7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안산공장의 강남희 사원이 서울 논현동 JK타워 S컨벤션에서 신부 김상미 양과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직원들의 축복 속에 백년가약 화축을 밝혔다.

자녀, 손주 출산 축하합니다!

김홍규 상무님께서는 지난 7월 4일 첫 손녀

PACOM NEWS



(김은비 양)를 보셔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답니다.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일 즐거우시다면 상무님의 얼굴에 손주 자랑으로 웃음이 가득하고, 입이 마르지 않으십니다. 또한 지난 7월 12일에는 전산실의 김민우 대리의 자녀 김채원 양이 가족의 사랑 속에 태어났습니다. 김 대리는 자녀 채원이를 위해 집안을 꾸미고 가꾸는 일에 풀 빠졌답니다.

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초기 일정은 10월부터 진행된다고 한다.

정보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열 가지입니다!

하나.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둘.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셋.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넷.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전당 10만원 이 상으로 기존의 30만원에서 기준금액 인하(7월~)

다섯.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

용 확대(9월~)

여섯.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일곱.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여덟. 면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 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50만원 이상(경미), 100만원 이상(보통), 200만원 이상(엄중)

아홉.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열. 주민등록번호수집, 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이원성**

금연 정책 실시

올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금연정책 통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27개국 중 25위를 기록해 슬로바키아, 일본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 1일 월례조회에서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운동에 힘입어 군포보건소의 협조에 의해 정회경 강사가 금연교육을 실시하였다.

예년에는 상반기 2, 3월 중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한동안 금연하던 직원이 다시 흡연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회사에서는 금연 정책



Pacom 동호회 소개

작년 가을 기사에 동호회를 홍보하였지만 별 호응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동호회와 새로 생긴 동호회를 소개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홍보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산동호회 – 산이조아

회장 – 이병길 본부장 010-3384-5613
활동 – 연중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비회원도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음

탁구동호회

회장 – 성문기 차장 010-5146-1224
활동 – 매일 점심, 저녁 시간
여름 시즌엔 더워서 활동 짐정적 중단

낚시동호회

회장 – 박충용 과장 010-8720-2082
활동 – 봄, 가을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선착순

축구동호회

회장 – 황영걸 과장 010-2646-9487
활동 – 한 달에 한번
선수 부족으로 인해 활동 짐정적 중단

30DAYS 복근 프로젝트

맨몸 피트니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 코어 운동의 기본인 플랭크(PLANK)운동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어란 척추를 지탱하는 척추 주변의 근육을 일컫는데 코어 균력이 향상되면 몸의 전체적인 운동 능력과 몸의 밸런스가 좋아지게 되어 다이어트에도 상당한 좋은 효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플랭크는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운동자세로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고 모두 같이 따라해 보세요.



플랭크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입니다. Plank, 즉 ‘나무판자’ 또는 ‘널판자’라는 뜻처럼 목에서부터 뼈까지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루 모든 일과를 마치고 사워하기 전 5분 투자로 30일 뒤엔 전 험 달라진 모습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균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남에 따라 세트 수와 세트 시간도 같이 늘려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세요. **조원근**

네이버에 **북메이크** 를 검색하세요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책 한 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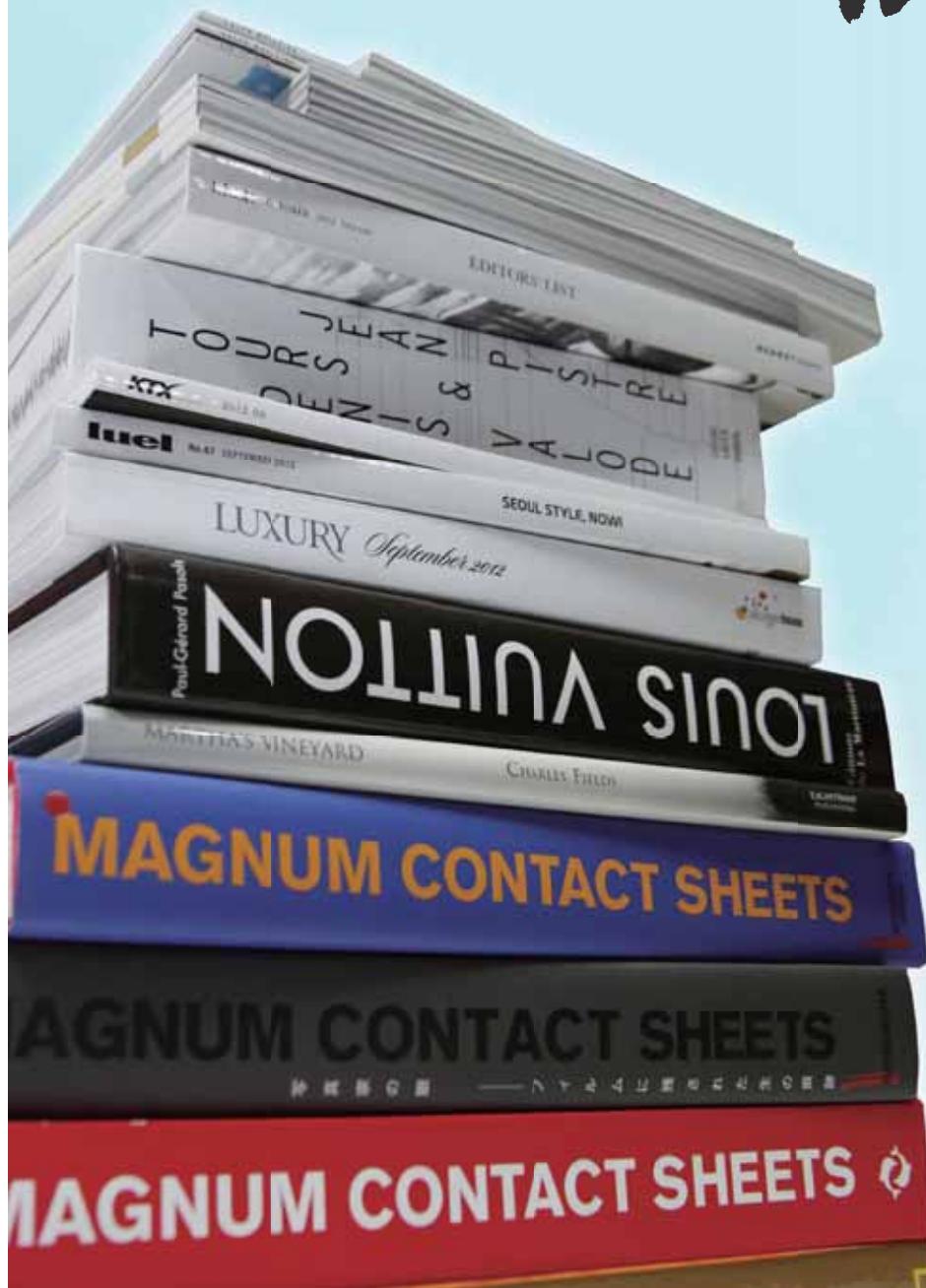
Book^make

휴가 때 여행 다녀온 기념으로 사진집을 만들어 볼까, 책장 한 권에 간직해 온
내 소설을 책으로 만들어 볼까 이제껏 고민하셨나요? 이제는 실천하세요!
북메이크가 당신이 원하는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마릿 속에만 간직해 온 추억을 책으로 만들어 기록을 남기세요^^

북메이크는 “대한민국 1위 인쇄 수출 기업” 팩컴의 소량 인쇄 제작 서비스 브랜드로,
2008년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고자 5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컴코리아 www.gopacom.com | 북메이크 www.bookmake.co.kr | 문의 : 1577-3669

고객의 꿈이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AP

MIRAEING

Pacom Books

BOOK JIHYERO

Book Make

BOOKMATE